

미래전략연구원 특별기고

후쿠다내각 출범의 배경과 전망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아베수상이 9월 12일 돌연 사임의사를 밝히고, 9월 23일 개최된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후쿠다 야스오씨가 아소 간사장을 누르고 후임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었다. 9월 25일 후쿠다 자민당 총재가 중의원에서 일본의 새로운 총리대신으로 선출되면서 후쿠다시대가 열렸다.

아베의 사임은 7월 29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 대패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64명의 개선의원을 내세운 자민당은 7월 29일에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37명밖에 당선시키지 못해, 참의원에서 제1당의 자리를 민주당에 내주는 것은 물론,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합쳐도 참의원 과반수를 확보할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자민당 역사상 연립여당이나 무소속을 합쳐도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첫 번째 선거였다. 자민당의 대패는 연금문제의 처리, 아베내각의 줄을 잇는 대신의 정치자금 스캔들과 사임, 그리고 소외된 지방의 반발 등에 기인한 것이었다. 아베총리는 이 모든 것의 지휘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수상직을 내놓지 않았다. 아베가 언젠가는 물러날 것을 예상한 총재 예비후보군들이 아베의 힘이 더 빠지고 자민당에 대한 비판의 열이 식을 때까지 기다리려 했기 때문이다. 참의원에서 과반수를 상실한 자민당이 국회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던 아베가 채 8월 27일 내각 개조를 한 지 채 2주도 못되어서 사임을 발표했다. 아베는 9월 12일에 사임을 발표하면서 자신이 중요시하는 '테러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 만두는 국면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에서 아직 심의조차 안한 상태였고, 새로운 법안 제안을 통해 야당과 타협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아베가 사임한 가장 큰 이유는 그가 9월 24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극도로 쇠약해진 그의 건강상태 때문이었다. 평소에도 위장이 나뻐던 아베는 참의원 선거이후의 당내외의 압력에 시달리고, 연이은 외유일정, 새로운 내각개조를 하면서 대신들의 이른바 '신체검사(대신 임명을 위한 신상조사)' 때문에 극도로 신경을 쓴 나머지 식욕을 잃어갔다. 새 내각 출범 직전에 이루어진 연쇄적인 외유는 그의 건강을 악화시켰다. 8월 19일부터 25일까지의 인도, 호주방문 당시 아베는 인도에서는 죽만 먹고 저녁에는 수액을 맞으며 견뎌냈고, 호주 방문 때에는 전혀 식사를 못하고 수액에 의존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

9월 10일 아베는 아소 간사장에게 수상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토로했지만, 아소는 만류할 뿐 더 이상의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소신표명연설을 함으로써 수상직을 계속할 의지를 밝혔던 아베는 결국 이틀 후인 12일에 주저앉고 말았다. 신체적 쇠약에 더하여 수상직을 계속할 정신적 의지를 상실한 것이었다. 9월 12일 오후 2시의 짙막한 사임 기자회견을 통해 아베시대의 1년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아베가 사임의사를 밝히자 정치평론가들은 후임엔 아소가 유력하다고 점을 쳤다. 하지만, 아소의 우위는 불과 하루만에 뒤집히면서 9월 13일 자민당내 파벌영수들에 의한 '아소 포위망'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아소의 오만과 실수가 배경요인으로 작용했다. 아소는 간사장에 취임하면서 자민당 당직자에 대한 인사권을 손에 넣고 사실상의 '살생부'에 의존하면서 자기 사람들을 요직에 임명했다. 아베가 부탁한 시오자키 전 관방장관의 정조회장 대리 임명도 고사할 정도였다. 아소는 고이즈미, 아베시대에 총무상, 정조회장, 외상, 간사장 등 각종 요직을 독점하였던 관계로 자민당 의원들의 질서를 독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아소가 아베의 사퇴타진의사를 사임 이틀 전인 9월 10일에 듣고도 자민당 중진 누구와도 상담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이 고조되었다. 다니가키(谷垣), 야마자키(山崎), 코가(古賀) 등 당내 비주류 3파벌 영수들이 후쿠다 지지를 선언하자 당내역학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고이즈미 전 총리가 자신의 재등판을 부정하고 후쿠다를 지지하자 당내 흐름은 후쿠다로 굳혀져갔다. 결국 자민당내 9개 파벌중 아소파를 제외한 8개 파벌이 후쿠다 지지를 천명하며 후쿠다 대세론으로 전환되었다.

9월 23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후쿠다는 330표를 얻음으로써 197표를 획득한 아소를 압도적으로 물리치고 22대 자민당 총재에 선출되었다. 하지만, 득표내역을 분석해보면, 아소가 예상외로 선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민당내 아소파 소속의원은 16명에 불과한 데도 불구하고, 의원표를 132표나 확보했다. 더구나, 각 도도부현에 3표씩 할당된 지방표에서는 아소가 65표를 얻어 76표를 얻은 후쿠다에게 근소한 차밖에 내지 않았다. 더구나, 직접 투표를 행한 35개 도도부현에서는 아소가 얻은 표의 합계가 253,692표로 250,613표를 얻은 후쿠다보다도 사실상 앞섰다. 이로써 아소는 차기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승리의 발판을 다져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소가 예상을 넘는 의원표와 지방표를 얻은 데에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 우선, 자민당내 젊은 의원들은 자신이 소속한 파벌 영수들이 파벌 소속의원들과 상의하거나 동의를 구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후쿠다 지지로 독주한 데 대한 불만이 있었다. 특히 구태의연한 파벌정치로 후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젊은 의원들로 하여금 파벌영수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다. 둘째, 후쿠다의 온건한 외교노선에 대한 불만이 아소에 대한 지지로 흘러들어갔다. 후쿠다는 아시아외교 중시론자로서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반대하고 과거사문제나 납치문제에 대해 비교적 온화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이즈미, 아베로 이어지는 보수강경론과는 대별되는 측면이 있어, 보수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아소 지지가 늘어났다. 셋째, 아소진영이 재계와 청년상공회의소 등을 활용

한 집요한 의원설득이 표면상으로는 후쿠다 지지, 사실상으로는 아소 지지로 나타났다. 젊은 의원들의 차기 총선거에 대한 불안이 아소 지지에 대한 압력을 주효하게 한 측면이 있었다.

후쿠다는 9월 25일 국회에서 총리에 임명되었다. 이어진 내각개조에서는 국회가 개원중임을 이유로 관방장관에 마치무라를 임명하고, 방위상이던 고무라를 외상으로, 신임 방위상에는 이시바 시게루를 임명하는 정도의 소폭의 개각에 머물렀다. 국회가 이미 개원중이어서 조각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후쿠다의 사명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진 자민당정권의 위기를 타개하고 자민당에서 돌아선 민심을 돌려세워 정권기반을 연장하는 것이다. 본인도 총재선거에서 민심의 이반을 회복하고 자민당을 재생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후쿠다는 '고이즈미 노선의 비판적 계승'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후쿠다는 고이즈미 총리가 추진한 구조개혁노선이 국민적 인기를 얻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후쿠다 수상은 모리와 고이즈미 수상시절 1,289일에 걸친 최장기 관방장관이었다. 즉, 그는 고이즈미 총리의 구조개혁노선을 관저내에서 충실하게 지탱해 준 인물이었다. 그러나 후쿠다 총리는 고이즈미 총리가 부수어 놓은 자민당의 지지기반 재생을 위해 고이즈미시대 이래 경시되어온 지방을 중시하고 경쟁에서 탈락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를 두텁게 하는 정책을 고안해 나갈 것이다. 아베가 강력히 추진한 '이념의 정치'에서 벗어나 '생활의 정치'를 회복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외교안보분야에 있어서 후쿠다의 노선은 고이즈미, 아베 노선에 대해 훨씬 온건한 노선을 펼 것이다. 그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과거사문제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아시아외교의 부재'를 당연시했던 고이즈미 수상과는 달리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외교의 복원'을 외교적 과제로 설정했다. 북한문제에 대해서도 납치문제를 최우선한 아베와는 달리 유연한 협상과 대화의 전략에 동승할 가능성이 크다. 한 마디로, 후쿠다의 정치노선은 국내에서의 개혁조치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대외적인 갈등요소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기본정책의 기초를 잡을 것이다.

문제는 내년 봄까지의 정치 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11월 1일로 기한이 끝나는 '테러특별조치법'의 통과여부가 지금부터 11월 초순까지 국회의 최대쟁점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실패할 경우 가능성은 작지만 중의원 해산을 압박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자민당은 해산을 원하지 않고, 민주당도 아직 준비가 불충분한 상태여서 중의원 해산은 연말을 넘길 공산이 크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열리는 일본의 정기국회는 연금문제, 소비세문제, 정치와 돈의 문제 등 후쿠다 내각을 괴롭힐 소재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예산의 통과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중의원 해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는 3월말, 4월초이다. 때에 따라서는 사실상 자민당과 민주당간의 '합의 해산(話し合い解散)'의 가능성도 크다. 총선에서 자민당이 승리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 만약 후쿠다 총리가 내년 3, 4월의 정치위기를 극

북하고 내년 7월 북해도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까지 주재할 수 있게 된다면, 후쿠다 정권은 예상보다 장기정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

내용 문의 :

미래전략연구원 <http://www.kifs.org>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9-1 신아빌딩 704 우)100-813 / 전화 (02)779-0711 / 팩스 (02)779-0718 / 메일 kifs@kifs.org